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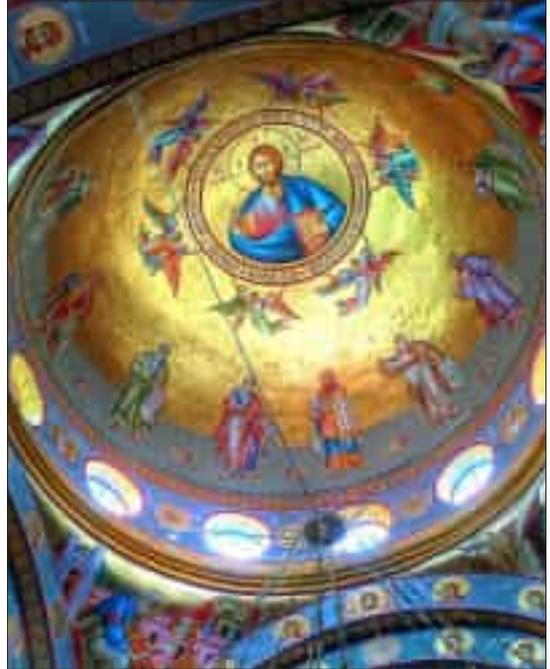


정교회주보

제2507호

2025.01.12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신현 축일 다음 주일
성 따디안나 순교자
(제4조 • 조과 복음 7)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신현축일 제2응송 155
 - 제4조 부활 찬양송 82
 - 신현축일 찬양송 155
 - 성당 찬양송
 - 신현축일 시기송 155
 - 사도경 : 에페소 4,7~13 158
 - 복음경 : 마태오 4,12~17 158
 - 신현축일 성모송 157
 - 신현축일 영성체성혈송 157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표지 사진 설명

돔 Dome

돔은 비잔틴 건축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성당 지붕에 반구형 모양을 얹어 건축되며, 여러 개의 돔이 설치된 성당도 있다.

돔이 있는 양식은 4세기 후반 또는 5세기 초에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에서 보이기 시작했으며, 모든 유형의 비잔틴 건축 양식과 결합하였다. 콘스탄티노플의 성 소피아 대성당(왼쪽 사진)은 돔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성당이다.

돔의 외부에는 대리석이나 청동 십자가가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와 아홉 천사단,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려진다. 돔 둘레를 따라 연속으로 이어진 창문은 내부에 자연 채광이 되어 하늘나라가 지상의 신자들과 결합하는 것을 상징한다.(오른쪽 사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에 함락된 후 돔은 이슬람교 건축 양식으로 도입되었다. 콘스탄티노플의 블루 모스크 사원은 성 소피아 대성당을 본떠 지어졌고 그 후 많은 이슬람 사원이 비슷한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다.

“저, 그래도 희망은 있겠죠?”

우종현 안토니오스 대신부



“**해**외 출장 때문에 여권을 재발급받으러 부산 시청에 갔습니다. 담당자가 단수 여권과 복수 여권 중에 어떤 거로 만들 거냐고 묻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암 투병 중이거든요. 작년에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지만, 올해 초에 재발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요즘은 다시 매주 서울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0년짜리 복수 여권으로 만들긴 했는데 그때까지 살 수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첫째가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이 아이 시집이나 보내고 죽어야 여한이 없을텐데... 둘째 녀석 군대 가는 건 볼 수 있을까요? 부모님보다 먼저 죽으면 불효자 되는 건데 요즘은 잠이 오질 않네요. 무균실에 격리되어 치료받으면서도 내가 아픈 것보다 남겨질 가족 생각하면 가슴이 자꾸 답답해집니다. 저, 그래도 희망은 있겠죠? 궁상떨어 죄송해요. 눈물이 자꾸 나네요.”

한참 전에 인터넷 어느 게시판에서 읽었던 글입니다. 글쓴이가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보다 가족을 더 걱정하는 사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시련을 겪습니다. 시련의 내용과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고난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시련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겪는 시련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성서는 “고통은 인내를,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끈기는 희망을 이루는 것”(로마 5,3-4 참조)이라고 가르칩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 큰 믿음과 희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면 하느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우선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성서에는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이 희망의 원천이 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면 긍정적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희망을 노래하는 기쁨이 모두에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혼란을 거둬주는 탄핵 정국과 큰 사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병마와 싸우는 부산의 그분, 응원합니다.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길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 나가는 우리는...

리비오스 사제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역임



교회에 나가는 우리는 마치 우리가 완벽주
의자들의 모임에 속한 것처럼 느끼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로지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들만을 위한 장
소여야 한다고 믿는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문
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단지 선한 사람이 되려고 교회에 가
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맛보려고 교회에 갑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어디에나 있는
악의 위협을 물리치려고 교회에 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전능하신
하느님과 연합시키기 위해 교회에 갑니다!

우리는 교회에 감으로써 결코 죽음을 맛보
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교회에 갑
니다!

우리는 죽음을 정복하는 삶의 길을 배우기
위해 교회에 갑니다!

우리는 낙원을 조금 맛보기 위해 교회에 갑
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
도 세상의 끝날까지, 겸손한 사람들의 공간이
될 것이고, 하느님을 위해 고난을 겪는 작은 이
들의 공간, 마음에 상처 입은 이들의 공간, 삶에
서 자신들이 어떤 성취도 이루리라고 믿지 않았
고 겸손한 마음에서 자신들의 덕을 결코 말하지
않았던 손상된 영혼들의 공간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고 훌륭
한 누군가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중요하고 대단한 누군가, 곧 우리 주님
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인데, 그분은 우
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
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도 우리를 집어삼키
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사랑은 단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며, 생명의 숨(호흡)
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갈 때마다 공급받는 것입니다!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는 17일(금) 축일을 맞이하는 우종현 안토니오스 대신부님과 임종훈 안토니오스 신부님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성인의 중보로 항상 건강하셔서 주님의 양 떼를 잘 이끌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 1월 17일(금)
성 안토니오스 대수도자
- * 1월 18일(토)
성 아타나시오스, 성 키릴로스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수요일 줌 모임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영성생활에 관한 대주교님의 강론이 온라인(줌)으로 이루어집니다. 세례신자, 예비신자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각 성당 신부님이나 아가티 수녀님에게 문의하시면 링크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알림

■ 대교구 의회 공고

1월 19일(주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으로 '제21회 대교구 의회'를 개최합니다.

1부에는 세례신자, 예비신자 모두 참석할 수 있습니다. 2부에는 의안 결의와 발언권을 가진 의회 의원들만 참석합니다.

참석하시는 일반 신자들께서는 대교구 사업과 교회 발전 방향에 대해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줌 링크 주소는 나중에 각 성당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 신자 총회 공고

각 성당의 2025회계년도 정기 신자 총회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결산과 새해 예산, 영적 사업,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합니다. 만 18세 이상 세례신자는 꼭 참석해 주십시오.

1월 12일 (오늘) - 부산, 인천, 전주, 춘천, 울산 성당

■ 부산 성당 청년회 겨울수련회

2024년 12월 27-28일(금-토)에 다음과 같은 주제로 청년회 수련회가 열렸고, 10명의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유아세례 이후에 믿음의 성숙
-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한 이해
- 성삼위일체에 대한 정교회의 믿음
- 하느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 하느님께 기도하는 방법
- 성찬예배서에 대하여

영성의 샘터

더욱 겸손하게

대 안토니오스 수도자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결코 내 형제의 유익보다 나의 개인적 이익을 더 우선 한 적이 없었다.”